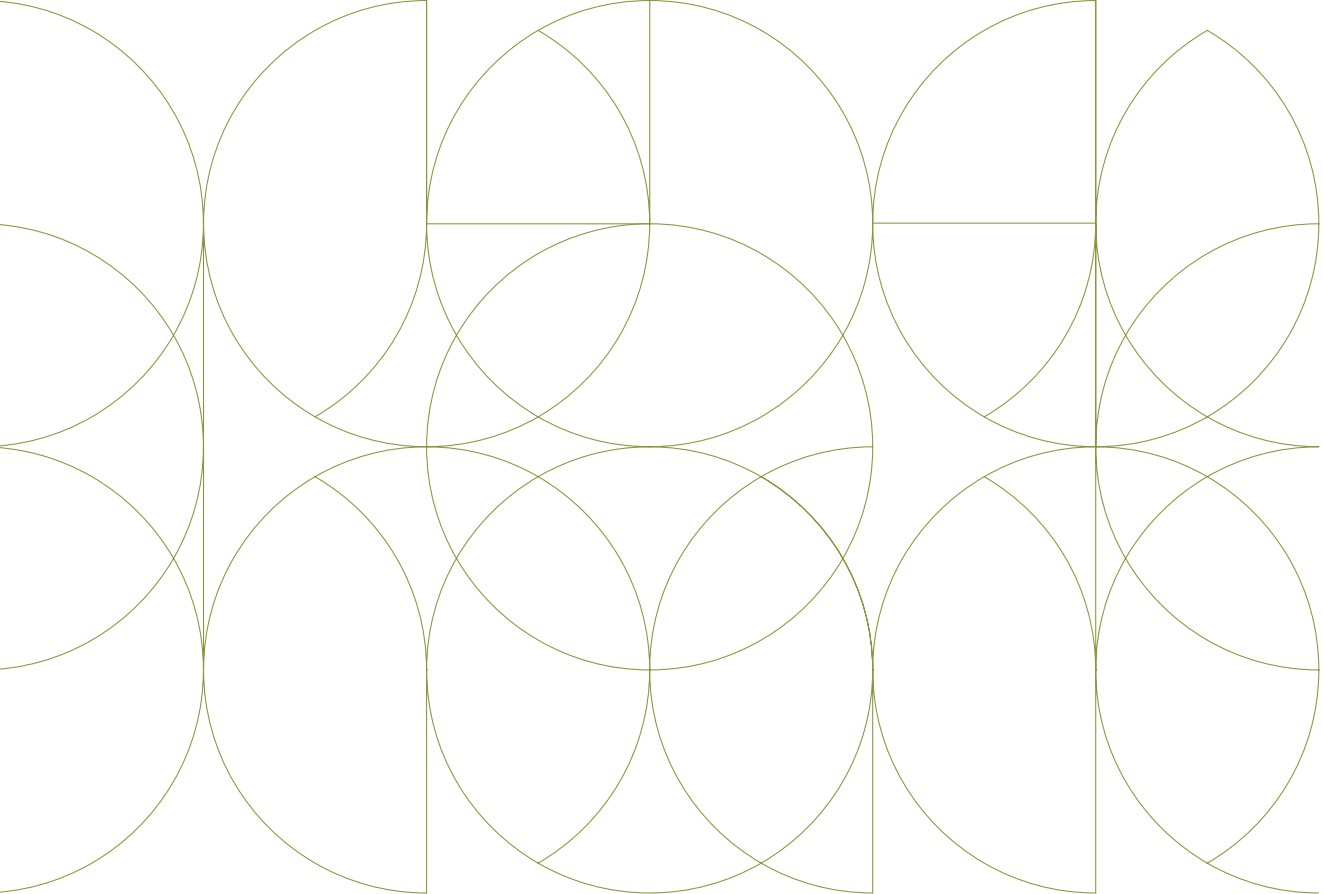


# KBS S.O. 827th

2026.6.18. THU 20:00

롯데콘서트홀



##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K**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 kbssymphonyorchestra
-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 Program

<p><b>베토벤</b> L. v. Beethoven</p>	<p><b>에그몬트 서곡, 작품 84</b> Egmont Overture, Op. 84</p>	<p>Ⓞ 9'</p>
<p><b>차이콥스키</b> P. I. Tchaikovsky</p> <p>피아노 / 브루스 리우 Piano / Bruce Liu</p>	<p><b>피아노 협주곡 제1번 b♭단조, 작품 23</b> Piano Concerto No.1 in b♭ minor, Op. 23</p> <p>I. Allegro non troppo e molto maestoso - Allegro con spirito 너무 빠르지 않고 매우 장엄하게 - 활기찬 알레그로 II. Andantino semplice - Prestissimo - Tempo I 간결하게 안단티노 - 매우 빠르게 - 처음 빠르기로 III. Allegro con fuoco 빠르고 정열적으로</p>	<p>Ⓞ 35'</p>
<p><b>인터미션</b></p>	<p><b>Intermission</b></p>	<p>Ⓞ 15'</p>
<p><b>차이콥스키</b> P. I. Tchaikovsky</p>	<p><b>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b> Symphony No.5 in e minor, Op. 64</p> <p>I. Andante - Allegro con anima 안단테 - 활기찬 알레그로 II.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노래하듯이 안단테, 자유로움을 가지고 III. Valse: Allegro moderato 왈츠: 알레그로 모데라토 IV. Finale: Andante maestoso - Allegro vivace 피날레: 느리고 장엄하게 - 매우 빠르고 활기차게</p>	<p>Ⓞ 50'</p>

※ 총 소요시간: 11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에너지와 우아한 음악성으로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아온 지휘자다.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전하는 그는 2026/27 시즌부터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예술적 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년 가을부터는 쾰른시 음악총감독(GMD)이자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로 재직 중이다. 취임 시즌에는 브람스,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독일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유서 깊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쾰른 오페라에서는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등을 지휘한다. 또한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와의 협업 및 국제 작곡 콩쿠르를 통해 젊은 음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3/24 시즌부터 이탈리아 RAI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들과 함께 스페인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독일 전역에 생중계된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새해전야제 콘서트를 지휘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다가오는 시즌에도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악단과 협연할 예정이다.

그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았다. 또한 빈, 베를린, 드레스덴 국립오페라극장과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을 비롯한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에서 활동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LA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왔다.

콜롬비아 메데인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했으며, 열다섯 살에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에 입학해 수학했으며, 2022년부터 같은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drés Orozco-Estrada, Conductor**



## 피아노 브루스 리우

2021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브루스 리우는 눈부신 기교뿐 아니라 “민첩한 다재다능함”(뉴욕 타임스)과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연주”(BBC 뮤직 매거진)를 겸비한 예술성과 호기심으로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는 최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만프레트 호네크, 파보 예르비, 야닉 네제-세갱, 안토니오 파파노 경, 라하브 샤니, 달리아 스타세프스카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2025년 여름, 리우는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 지휘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BBC 프롬스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는 마린 알습 지휘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정명훈과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NCPA Orchestra),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투어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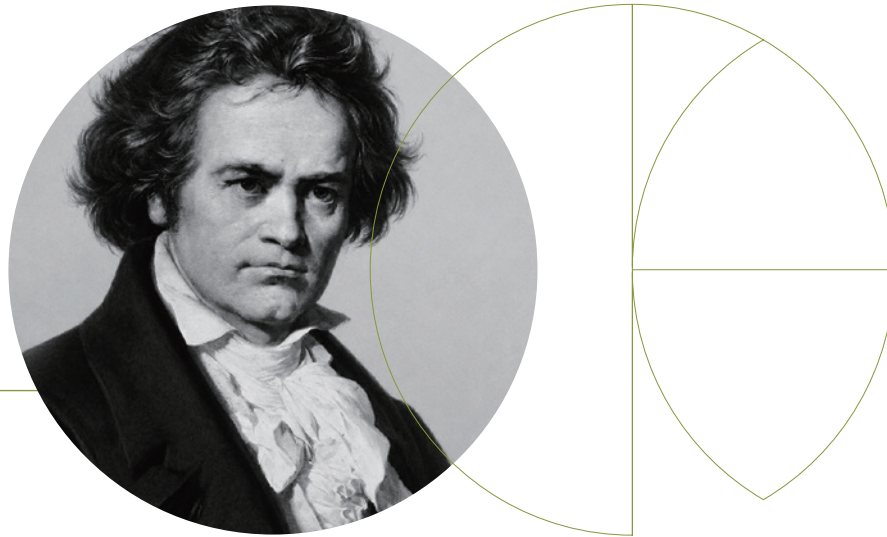
2025/26 시즌 주요 일정으로는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와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일본 투어, 다니엘레 가티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중국 투어, 그리고 야마다 가즈키와 버밍엄 시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파리 투어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스포트라이트 아티스트(Spotlight Artist)로 선정되어 프란츠 벨저비스트, 구스타보 히메노와 여러 차례 협연할 예정이다.

활발한 리사이틀 연주자인 리우는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 필하모니와 같은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해왔다. 2025/26 시즌에는 베를린 필하모니와 리옹 오페라 하우스에서 리사이틀 데뷔를 가지며, 카네기 홀, 빈 무지크페어라인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의 주요 공연장 무대에도 복귀할 예정이다. 또한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라 로크 당테롱 피아노 페스티벌,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애스펀 및 탱글우드 뮤직 페스티벌 등 저명한 국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서, 리우는 그의 데뷔 스튜디오 앨범 《WAVES》로 2024년 ‘오퍼스 클래식 올해의 젊은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를 수록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은 2024년 11월 발매되었으며, “대단히 세련되었으면서도 과장된 표현 없이, 이 매력적인 살롱 소품들에 걸맞은 존중과 진정성을 부여한다”(가디언)는 호평을 받았다.

파리에서 태어나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브루스 리우의 예술성은 유럽의 세련미, 북미의 역동성과 중국 문화의 오랜 전통이 어우러진 다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리처드 레이먼드와 당 타이 손을 사사했다.

## Bruce Liu, Piano



**베토벤 /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L. v. Beethoven / Egmont Overture, Op. 84**

**작곡** 1809년~1810년  
**초연** 1810년 6월 15일, 오스트리아 빈 부르크 극장  
**편성** 플루트 2(피콜로 1),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9분

<에그몬트 서곡>은 오페라 작품에 포함된 ‘오페라 서곡’이 아니어서 흔히 ‘콘서트 서곡’으로도 불리지만, 정확히 분류하면 ‘극 부수음악 중 서곡’이다. 베토벤은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1788)를 위한 극 부수음악으로 서곡과 아홉 장면의 악곡들을 작곡했으나 오늘날에는 이 서곡만이 독립적인 연주회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된다. 1810년 빈 부르크테아터에서 괴테의 연극 <에그몬트>가 공연되었을 때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베토벤의 이 악곡들을 연주했다.

괴테의 희곡은 실존 인물인 라모랄 판 에그몬트 백작(Lamoral, Count of Egmont, 1522-1568)의 비극적 생애를 다룬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플랑드르(현재의 네덜란드 지역)의 영웅 에그몬트는 압제에 맞서 플랑드르 민중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플랑드르의 저항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스페인의 알바 공작은 에그몬트를 반역죄로 체포하고, 에그몬트의 정치적 이상을 숭배하는 평민 연인 클레르헨은 민중을 선동해 에그몬트를 구하려 하지만 구출 계획이 실패하자 자살한다. 처형을 앞둔 에그몬트는 자유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리라는 미래의 환상을 보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베토벤은 이 에그몬트 이야기에서 자신이 평생 추구한 자유와 인간 존엄의 이상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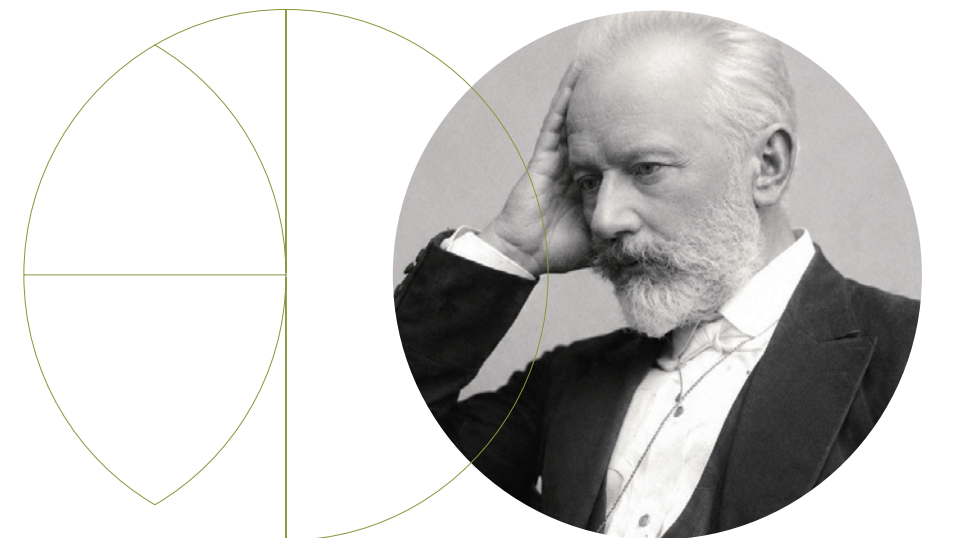
스페인 춤곡 ‘사라방드(Sarabande)’ 리듬의 하강 화음으로 시작하는 서주 부분은 스페인의 압제를 상징하는 무겁고 격렬한 음향이다. 이를 뚫고 플랑드르 민중의 저항과 분노를 표현하는 제1주제가 현악의 격렬한 상승 화음으로 나타나고, 서정적이지만 긴장이 지속되는 제2주제가 등장한다. 발전부에서는 극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두 주제가 충돌하고, 조성 및 리듬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최후의 결전을 표현하는 재현부에서는 주제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마지막 코다 부분에서는 조성이 환희의 장조로 바뀌며 팀파니와 금관의 팡파르 및 오케스트라 총주를 통해 죽음을 넘어선 자유의 승리를 표현한다. 비슷한 시기에 작곡한 <교향곡 5번>에서처럼 ‘어둠을 넘어 빛으로’ 향하는 음악은 에그몬트 정신의 승리를 음악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9분 남짓한 연주 시간의 4분의 3이 투쟁과 고통을 표현하지만 최후의 2분은 폭발적인 환희를 보여준다. 괴테는 이 서곡을 듣고 “베토벤은 내 희곡에 완전히 불을 질러버렸다”며 감탄했다.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b단조, 작품 23**  
**P. I. 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b minor, Op. 23**

**작곡** 1874년~1875년  
**초연** 1875년 10월 25일, 미국 보스턴  
**편성** 피아노 독주,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35분

차이콥스키는 가까운 사이였던 모스크바 음악원장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1874년에 완성한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악보를 들고 가 초연 연주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 곡을 들은 루빈스타인은 “진부하고 독창성이 결여되어,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는 곡이다. 피아노라는 악기에 맞지 않는 곡이기도 하다”라고 혹평하고는, “이 곡을 연주하려면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테고 수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기치 못한 혹독한 평가에 분노한 차이콥스키는 음표 하나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는, 평소 자신의 음악에 호의적이었던 독일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한스 폰 뷔로(Hans Von Büllow)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다. 폰 뷔로는 “형식적으로 완벽하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하면서, 1875년 미국에 초청되었을 때 보스턴에서 이 곡을 초연해 큰 반향을 얻었다. 연주를 들은 카네기는 ‘음악의 제왕’이라며 차이콥스키를 격찬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곧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시 연주되었고, 이 곡의 성공을 지켜본 루빈스타인의 사과로 두 사람은 결국 화해했다.

이 협주곡은 당대의 다른 피아노 협주곡들과는 달리 특별히 교향악적인 성격이 강하면서도, 피아니스트의 절대적인 비르투오소 테크닉을 요구한다. 여러 옥타브를 뛰어넘으며 연주해야 하는 패시지가 종종 등장하며 피아노가 쉽 없이 긴 패시지를 연주해야 하는 난곡이다. 루빈스타인은 “진부하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새로운 형식의 곡이었다. 리스트의 제자였던 유명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실로티(Alexander Siloti)의 조언을 반영한 개정본에서 차이콥스키는 화음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덧붙였다.



### I. Allegro non troppo e molto maestoso – Allegro con spirito

알레그로 악장인 1악장의 화려한 도입부 바로 뒤에 유명한 주제 멜로디가 등장한다. 차이콥스키는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근처의 어떤 러시아 노숙자가 흥얼거리는 멜로디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소나타 형식의 악장이지만, 자유로운 전개방식을 취해 마치 환상곡 같은 느낌을 준다.

### II. Andantino semplice – Prestissimo – Tempo I

자연을 묘사하는 듯한 서정성을 지닌 2악장은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자작나무숲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빠른 템포의 경쾌한 스케르초로 옮겨가면서 2악장 또한 독특하고 새로운 형식의 악장이 되었다.

### III. Allegro con fuoco

불길이 타오르듯 격렬하고 빠르게 연주하라는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Allegro con fuoco)’는 수많은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서도 가장 스펙터클한 악장이다. 피아니스트의 양손은 피아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종횡무진 날아다니며, 이런 옥타브 패시지가 청중을 완벽하게 몰입시킨다. 슬라브 무곡 스타일의 론도 주제 뒤에 민속가요 풍의 소박한 주제가 따라 나오며 긴장과 해소가 교차하는데, 고난도 테크닉의 피날레 부분은 겹겹이 쌓인 긴장을 극한으로 몰고 갔다가 마침내 청중을 극적으로 해방시킨다.

##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 P. I.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 64

**작곡** 1888년  
**초연** 1888년 11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편성** 플루트 3(피콜로 1),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50분

1888년에 차이콥스키는 지휘자로 연주여행을 시작해 그리그, 브람스, 드보르자크 등을 만났고, 이 해 11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향곡 제5번>을 초연했다. ‘차이콥스키의 운명 교향곡’으로 불리는 이 작품은 ‘운명과의 대결-체념-도피-승리’라는 전개를 보여준다.

### I. Andante – Allegro con anima

1악장의 느린 도입부에서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우울한 멜로디는 운명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황제에게 바친 목숨>에서 따온 주제다. 불안한 느낌을 표현하는 빠른 템포의 제1주제와 서정적이면서 체념의 분위기를 지닌 제2주제가 대비된다.

### II. 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

‘안단테 칸타빌레, 콘 알쿠나 리첸차(Andante cantabile, con alcuna licenza)’라는 연주 지시를 담은 2악장에서 호른이 연주하는 주제 선율은 감미로우면서도 서글픈 분위기를 만든다. ‘안단테 칸타빌레’는 ‘느리게 노래하듯이’, ‘리첸차’는 오페라에서 가수들이 임의로 템포를 바꾸어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연주하라는 지시어다. 오보에가 연주하는 주제는 대조적으로 사랑스럽고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운명 동기의 갑작스런 침입은 행복한 순간에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타격을 암시한다.

### III. Valse: Allegro moderato

3악장은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Valse: Allegro moderato)’로 매력적인 왈츠 선율을 담고 있다. 발레음악에 뛰어난 차이콥스키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는 악장이다. 몽환적인 왈츠와 활기 가득한 스케르초가 도피와 위로를 제공하지만 악장 말미에는 다시 ‘운명의 동기’가 희미하게 울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 IV. Finale: Andante maestoso – Allegro vivace

느리고 장엄하게 시작하는 4악장 피날레 악장은 마치 운명을 극복한 듯 에너지 넘치는 질주로 넘어가고, 트롬본과 튜바 등 금관악기들이 운명의 동기를 압도적으로 연주하며 교향곡은 E장조의 환희에 찬 승리의 음악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후에 차이콥스키 자신이 이 교향곡을 “작위적인 거짓”이라고 스스로 비판하면서, 이 피날레의 승리가 ‘운명에 대한 진정한 극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글 | 이용숙 (음악평론가·홍익대학교 교양과 교수)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 YouTube **KBS교향악단**





황혼의 마지막 춤

# THE LAST DANCE OF TWILIGHT

지휘  
안토니 헤르무스  
Conductor  
Antony Hermus

바이올린  
네만야 라두로비치  
Violin  
Nemanja Radulović

2026. 7. 9.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바게나르 /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작품 23  
J. Wagenaar / Cyrano de Bergerac Overture, Op. 23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63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 2 in g minor, Op. 63

라흐마니노프 / 교향적 무곡, 작품 45  
S. Rachmaninoff / Symphonic Dances, Op. 45



# KBS교향악단 70<sup>th</sup> 특별연주회 손민수 · 임윤찬

KBS SYMPHONY ORCHESTRA 70TH SPECIAL CONCERT WITH MINSOO SOHN & YUNCHAN LIM



지휘  
스즈키 마사토  
Conductor Masato Suzuki

피아노  
손민수, 임윤찬  
Piano Minsoo Sohn, Yunchan Lim

2026. 7. 22. WED 20:00

롯데콘서트홀

모차르트 / 돈 조반니 서곡  
W. A. Mozart / Overture to Don Giovanni, K.527

모차르트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 Eb장조, K.365  
W. A. Mozart / Concerto for Two Pianos No.10 in Eb Major, K.365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8번 G장조, 작품 88  
A. Dvořá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 단원

<b>제1바이올린</b>	최병호 <small>부악장</small> 반선경 <small>수석</small> 유신혜 <small>부수석</small>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b>플루트</b>	김태경 <small>부수석</small> 이철호 전서영
<b>제2바이올린</b>	권민지 <small>수석</small> 임정연 <small>부수석</small> 안지현 <small>부수석</small>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소재희	<b>오보에</b>	이지민 <small>수석</small> 김종아 <small>부수석</small> 조성호
<b>비올라</b>	진덕 <small>수석</small> 한넬리 <small>부수석</small>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b>클라리넷</b>	이하늘 <small>부수석</small> 박한 양수현
<b>첼로</b>	김우진 <small>수석</small> 윤여훈 <small>부수석</small>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b>바순</b>	박준태 <small>수석</small> 고주환 <small>부수석</small> 김소연 정순민
<b>더블베이스</b>	이창형 <small>수석</small> 김남균 <small>부수석</small> 안수현 <small>부수석</small>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b>호른</b>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b>트럼펫</b>	남관모 <small>수석</small> 김주원 <small>부수석</small> 정용균 김승헌
		<b>트롬본</b>	김성수 <small>부수석</small> 윤지연
		<b>베이스트롬본</b>	정다운
		<b>튜바</b>	Norito Usui
		<b>팀파니</b>	이원석 <small>수석</small>
		<b>타악기</b>	Jason Yoder <small>수석</small> 장세나 Matthew Ernster
		<b>하프</b>	김서원

### 객원수석

<b>악장</b>	Soo Jin Hong <small>(덴마크 국립 방송 교향악단 악장)</small>	<b>클라리넷</b>	조성호 <small>수석</small>
<b>플루트</b>	안명주 <small>수석</small>	<b>호른</b>	김홍박 <small>수석</small>

### 사무국

<b>사무국장</b>	홍석우
<b>공연기획팀</b>	<b>팀장</b> 손유리 <b>차장</b> 김지민 <b>과장</b> 성채은 <b>전현정 대리</b> 최난희 <b>사원</b> 허효정 <b>인턴</b> 손지수
<b>공연사업팀</b>	<b>팀장</b> 이한신 <b>책임</b> 손대승 <b>차장</b> 김원재 <b>유연철 과장</b> 이미라 <b>PD</b> 서영재 <b>사원</b> 장태형 신재영
<b>경영관리팀</b>	<b>팀장</b> 강길호 <b>차장</b> 유정의 <b>박연선 사원</b> 윤자윤 정태훈

##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b>Symphony</b>	<b>1억원 이상</b>	<b>10년</b>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b>Concerto</b>	<b>3천만원 이상</b>	<b>5년</b>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b>Cantata</b>	<b>1천만원 이상</b>	<b>2년</b>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b>Nocturne</b>	<b>5백만원 이상</b>	<b>1년</b>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b>Prelude</b>	<b>1백만원 이상</b>	<b>1년</b>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b>Etude</b>	<b>1십만원 이상</b>	<b>1년</b>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 KBS교향악단 이사회

<b>이사장</b>	<b>이건수</b> (주)동아일렉콤 회장	<b>이사</b>	<b>김대진</b>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b>감사</b>	<b>남유선</b>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b>김광일</b> MBK파트너스 부회장
<b>상임이사</b>	<b>이승환</b> KBS교향악단 사장		<b>김덕술</b>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b>이우영</b>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이유진</b> KBS 시청자센터장
			<b>이항선</b> KBS 예능센터장
			<b>하중란</b> KBS 라디오센터장

## 후원회 명단

<b>Concerto</b>	<b>김광일</b> MBK 파트너스 부회장 <b>김덕술</b>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b>김인호</b>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b>김정수</b>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b>백정호</b> 동성그룹 회장 <b>서봉준</b> (주)동림유화 대표 <b>이영애</b> 배우 <b>이학노</b>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b>최원석</b>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b>허남선</b>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b>NH-Amundi 자산운용</b>	<b>Nocturne</b>	<b>교보문고</b> <b>김동진</b> 금양식품(주) 대표 <b>이재록</b> (주)석교디앤디 대표 <b>이종원</b> H&O 코리아 대표 <b>이항일</b> (주)하어스엠 대표 <b>정옥선</b>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b>한문규</b>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b>NH투자증권</b> <b>9 BLOCK</b>
<b>Cantata</b>	<b>고중제</b>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b>권오현</b> 전)삼성전자 회장 / 현)삼성전자 상근고문 <b>구자관</b> (주)삼구INC 회장 <b>김영기</b> 변호사 <b>김원희</b> <b>김호수</b> (주)효석 대표 <b>매크로통상(주)</b> <b>문양호</b> (주)동영관광 대표 <b>박은관</b> (주)시몬느 회장 <b>박정옥</b> 전)KBS교향악단 사장 <b>서봉준</b> (주)동림유화 대표 <b>설명수</b> 석교실업 회장 <b>신한투자증권</b> <b>안국약품(주)</b> <b>오영환</b>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b>유승원</b> 동우교역 대표 <b>윤만호</b>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b>이윤세</b>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b>이재영</b> L&T렉서스 회장 <b>장덕수</b> (재)우민재단 이사장 <b>정진학</b> 유진기업 사장 <b>한국산업은행</b> <b>SODA</b>	<b>Prelude</b>	<b>권정숙</b> <b>김희진</b> 포크가수, DJ <b>박병원</b> <b>박옥균</b>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b>박지현</b> KBS 아나운서 <b>박항미</b> <b>배홍기</b>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b>서성희</b> 삼성생명 명인 <b>유순신</b>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b>윤도식</b>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b>윤혜원</b>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b>이규혜</b> 한양대학교 교수 <b>이명숙</b>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b>장희용</b> 변호사 <b>장희진</b> 올리브클래식 대표 <b>전희재</b> 노무사 <b>조명현</b>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b>최기수</b> 최앤이치과 원장 <b>최정아</b> <b>(주)코스모스악기</b>



#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섶리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